

INTRO : KEYWORD

인터뷰이 필진들의 말, 말, 말 :

스타트업만의 강점은 무엇일까?



“스타트업은 고객의 문제에 뾰족하게 달라붙고 이를 빠르게 해결합니다. 몸이 크고 둔한 대기업은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대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작은 문제는 지나치기 쉽습니다. 몸이 가볍고 문제의식이 첨예하면서 집중력이 강한 것이 스타트업의 강점입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실천하는 속도감이 스타트업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스타트업’이라는 조직으로 불릴 수 있는지의 기준이 되기도 할 텐데요. 단순한 제품 성장이 아니라 조직이 단단해지며 겪는 성장통을 얼마나 빠르게 수용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역량. 스타트업의 강점인 동시에 장기적인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황조은 카카오펀더스 PR팀장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 영국 창업자가 창업 당시 멘토에게 들었다는 말을 저 또한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행복하지 않다면 너는 사업가(entrepreneur)가 아니다.” 창업자 및 스타트업 관계자는 작은 규모의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언제든 전환할 수 있기에 항상 좋은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좋은 업무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스타트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 수가 적은 만큼 약간의 변화로도 그를 둘러싼 환경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문관균 에그번 대표



“스타트업의 강점은 바로 ‘전통과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더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찾아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스타트업은 모든 기회에 노출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권재의 루나르트 대표



“스타트업에서는 자유롭게 꿈꿀 수 있고 그 꿈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며 성장의 기회 또한 많습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해도 질책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강점을 더욱 살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스타트업의 강점입니다. 조직에서 수동적으로 배우거나 틀에 정해진 것보다도 팀원들과 주어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직접 시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행력도 빠르고 시장의 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듯합니다. 또한 스타트업은 자신의 열정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업무 환경, 수평적 분위기, 함께 일하는 환경, 같은 스타트업 정신을 갖고 있는 팀원들과 함께 빌드업하는 분위기 등 특유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서연 어뮤즈트래블 대표



“스타트업의 강점은 ‘질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가 성공하지 못하거나 투자를 더 유치하지 못했을 때, 좋은 인재가 떠나거나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평판이 떨어지는 등의 리스크를 접하는 마음가짐부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두어 번의 실패를 하더라도 이를 보충할 시간과 자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큰 실패를 하면 거기서 끝이기에 더욱 치열하고 질박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형그리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최준호 아웃스탠딩 기자

